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의 운용사들의 국민투자금 운용전략을 청취하고 향후 관리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1. 간담회 개요

신진창 금융위 부위원장은 ‘26.10.29일(목), 지난 9.30일 출시되어 국민자금 모집을 마친(10.15일 판매종료)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의 투자운용을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10개사)의 운용전략을 청취하고 향후 관리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운용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운용사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 '26. 10. 29.(목) 15:00 /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23층)

■ 참석자

- (금융위) 금융위 부위원장, 국민성장펀드추진단장
- (관계기관) 산업은행 부행장, 한국성장금융 대표
- (공모펀드 운용사) 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 3개사 대표
- (자펀드 운용사) 자산운용사 10개사* 대표

- * ① (대형, 약 1,000억원 규모) 디에스, 한국투자밸류
② (중형, 약 720억원 규모) 브레인, 케이비, 퀴드, 트러스톤
③ (소형, 약 370억원 규모) 디비, 엔에이치헤지, 토러스, 하나

■ 논의내용 : ❶ 운용사별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운용전략
❷ 운용성과 모니터링 및 관리 방안

2. 간담회 주요 논의사항

신진창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말씀을 통해 국민참여성장펀드는 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민간 합동의 장기 프로젝트에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산업 성장의 결실을 함께 나누기 위해 출시되었다는 펀드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아울러, 이번 2차 펀드의 가입자 수는 지난 1차 펀드보다 약 2,700여명이 많은 3만 3천여명이며, 1차(30,038명)와 합한 금년 총 가입자 수는 약 62,800명으로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과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신 부위원장은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가 많은 국민들의 소중한 자금이 모여 조성된 만큼,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운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임을 언급하며, 이를 위해 2차 펀드의 자금을 운용할 전문 운용사도 새롭게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1차 펀드의 첫 3개월간의 수익률이 저조하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국민참여성장펀드가 5년 만기의 장기 폐쇄형 펀드이며, 이제 막 운용을 시작한 초기 단계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중장기적 투자가 필요한 첨단전략산업의 특성과 다양한 분야와 기업에 분산 투자가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펀드의 투자대상이 상장주식 외에도 즉시 가치평가가 어려운 비상장 주식·메자닌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고, 자산별로 가치평가가 가능한 시점이 상이한 만큼, 기업과 펀드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긴 호흡으로 운용성과를 평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신 부위원장은 장기 투자에 대한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참여성장펀드에 세제 혜택을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재정 등이 약 20% 내외의 손실을 국민투자금에 앞서 우선 부담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 투자금액별 10~40% 소득공제, 배당소득 9.9% 분리과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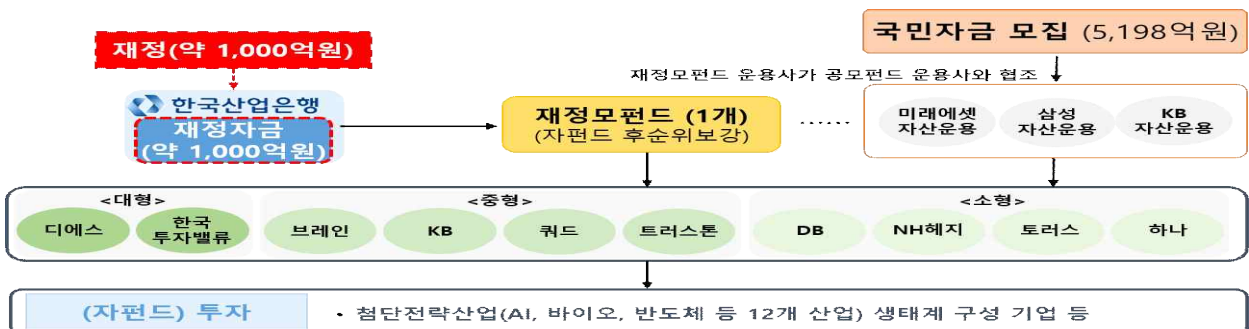
또한, 펀드가 좋은 성과를 내면 운용사도 초과수익의 일부를 나눠 갖는 “성과 인센티브”를 설명하면서, 펀드의 성장이 기업뿐만 아니라, 국민과 운용사 모두에게 실질적 결실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운용사들이 기업을 보는 선구안과 축적된 투자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펀드를 잘 운용하여 “여민동락”(與民同樂) 즉, 국민과 함께 성장의 결실을 나눌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후, 자펀드 운용사들은 각 사별 운용전략을 발표하였다. 투자기간 초기에는 기업에 대한 신규자금을 우선 발굴, 공급하고, 기업에 필요한 자금이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하였다. 아울러, 특정 종목에 편중되지 않는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위해 각사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3. 향후계획

산업은행(재정출자자),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재정모펀드 운용사)과 공모펀드 운용사(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로 구성된 공모펀드컨소시엄은 국민참여성장펀드의 투자현황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위험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 국민의 소중한 재산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모니터링해나갈 계획이다.

[참고: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구조도]



※ [별첨1]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말씀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국민지역참여지원과	책임자	과 장	이종림 (02-2224-2070)
		담당자	사무관	최지은 (02-2224-2071)
			사무관	박찬혁 (02-2224-2072)
			주무관	이세은 (02-2224-2075)